



ASEIC

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2014 연간보고서

Contents

제1장 발간사	01
제2장 소개	02
• ASEM 소개	
• ASEIC 소개	
제3장 2014년도 주요사업 및 성과 보고	
• (재)아셈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센터 개소식	04
•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08
• 친환경적정기술	11
• ASEM에코이노베이션 지수(ASEI)	15
• 글로벌 포럼 ENV포럼 한-중 친환경 산업협력 포럼 및 무역상담회	19
• 그린 비즈니스 센터(GBC) 운영	25
• ASEIC 사이트 운영	27

1장

발간사

ASEM 회원국

에코이노베이션 축진의

선두주자로서의 ASEIC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지 오래입니다. 더불어 세계경제 역시 과거의 무분별한 성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그 중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세계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변화를 이끌어야 함은 이제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ASEIC은 ASEM 회원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사업, ASEM 회원국의 에코이노베이션 현황을 평가하여 향후 발전가능성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에코이노베이션 확산을 위한 정책 및 전략수립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ASEM 에코이노베이션 지수(ASEI) 사업, 아시아 회원국 중소기업들에게 맞춤형 기술 전수를 위한 친환경 적정기술 사업, ASEM 회원국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그린비즈니스 센터 운영 사업 그리고 전 세계 다양한 전문가들의 에코이노베이션 관련 생각들을 교류하기 위한 글로벌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아시아와 유럽 중소기업들의 친환경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제10차 ASEM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 번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동시에 (재)ASEIC이 수행해야 할 역할들이 공식 언급되면서 저희는 앞으로의 행보에 더 큰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ASEIC은 국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적정기술을 통해 ASEM 회원국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오는 9월에는 사업성과 공유와 국제사회에 에코이노베이션 확산을 위해 국제 포럼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업들을 순조롭게 유지하는 동시에 신사업들을 발굴하여 명실상부한 아시아-유럽 중소기업 간 에코이노베이션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각계각층과의 활발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기존 사업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신사업들을 발굴하여 명실상부한 아시아-유럽 중소기업 간 에코이노베이션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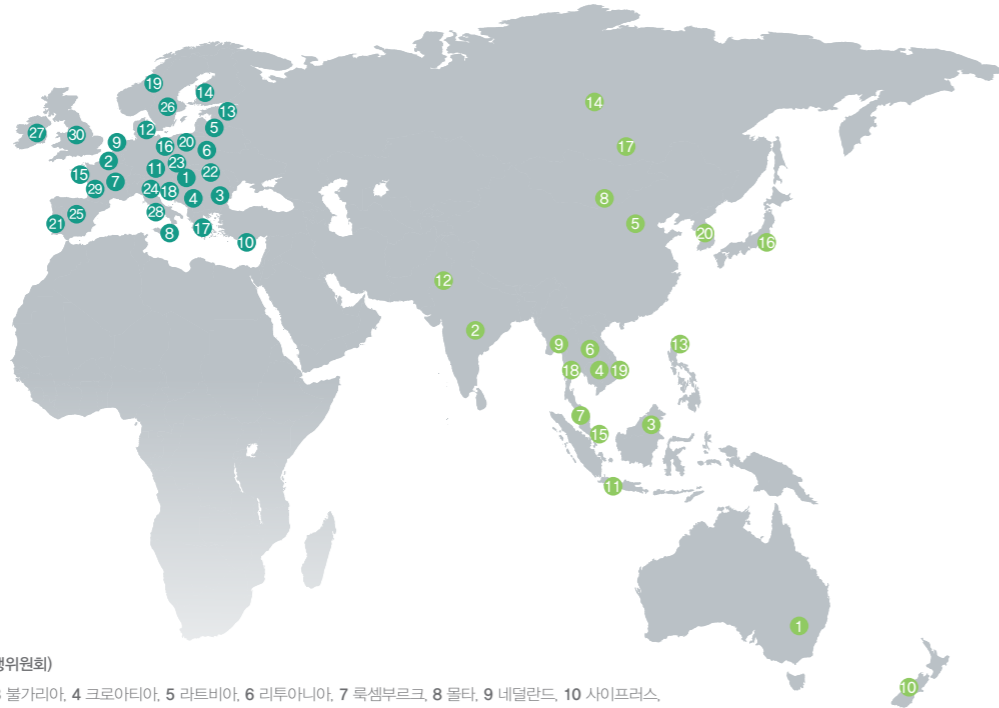
제2대 (재)아셈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센터
이사장 이규대

2장

소개

ASEM 및 ASEIC 소개

ASEM 회원 [51개 회원국 + EU집행위원회, ASEAN 사무국]



● 유럽그룹(30개국+EU집행위원회)

1 오스트리아, 2 벨기에, 3 불가리아, 4 크로아티아, 5 라트비아, 6 리투아니아, 7 룩셈부르크, 8 몰타, 9 네덜란드, 10 사이프러스, 11 체코, 12 덴마크, 13 에스토니아, 14 핀란드, 15 프랑스, 16 독일, 17 그리스, 18 헝가리, 19 노르웨이, 20 폴란드, 21 포르투갈, 22 루마니아, 23 슬로바키아, 24 슬로베니아, 25 스페인, 26 스웨덴, 27 아일랜드, 28 이탈리아, 29 스위스, 30 영국

● 아시아그룹(21개국 +ASEAN사무국)

1 호주, 2 방글라데시, 3 브루나이, 4 캄보디아, 5 중국, 6 라오스, 7 말레이시아, 8 몽골, 9 미얀마, 10 뉴질랜드, 11 인도, 12 인도네시아, 13 파키스탄, 14 필리핀, 15 러시아, 16 싱가포르, 17 일본, 18 카자흐스탄, 19 태국, 20 베트남, 21 대한민국

ASEM 소개

ASEM은 1994년 10월 싱가포르가 아시아-유럽 지역 국가들이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아시아와 유럽 국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회의의 창설을 제의하였고 이로써 ASEM의 발족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1996년 태국에서 제1차 ASEM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이후 ASEM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ASEM은 총 51개 회원국 및 유럽연합과 ASEAN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년마다 아시아와 유럽을 번갈아 가며 ASEM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해당 회의에는 각 국가대표, 유럽집행위원회 및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ASEM 내에는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외무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를 비롯하여 각종 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 등 다양한 단계의 회의가 정례화 되어있다. 이 밖에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세 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촉진, 무역과 투자확대, 국제연합(UN)개혁, 환경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www.aseminfoboard.org

ASEIC 비전

ASEM회원국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지원을 통하여
친환경 경영혁신을 도모하는 국제기구



ASEIC 소개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이하 'ASEIC')는 중소기업 중심 친환경 국제협력기구로서 독립적인 활동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제8차 ASEM 정상회의에서 ASEIC의 설치 및 운영이 공식 인준된 후, 2011년 6월 15일 공식적으로 출범되었고 2014년 재단법인화 됨으로써 ASEM 회원국들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국제협력기구로 자리를 잡았다. 현재 ASEIC은 ASEM 역내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경영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ASEIC의 진행 사업

ASEIC의 주요 프로그램은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친환경 적정기술, ASEM 에코이노베이션 지수(AEI) 연구, 글로벌포럼 개최, 그린비즈니스 센터(GBC)운영 등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사업은 ASEM 회원국 중소기업들에게 전문컨설턴트를 파견하여 맞춤형 개선지도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친환경 적정기술 사업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중소기업들이 현지에 필요한 기술을 보급하고 또 이를 통해 현지 국가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다음으로, ASEM 에코이노베이션 지수(AEI)는 ASEM 회원국을 대상으로 에코이노베이션 실태 및 수준을 정량·정성적인 지표로 나타내어 회원국 내 에코이노베이션 현황파악 및 관련정책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또한 글로벌포럼을 통하여 에코이노베이션에 대한 세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있으며 이로써 에코이노베이션이 ASEM 회원국 내에서 보다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그린비즈니스 센터 운영은 회원국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홍보의 일환으로써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송해 에코이노베이션과 ASEIC의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다.

ASEM 회원국 정부들이 주축이 되어 중소기업의 에코이노베이션 효과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는 ASEIC은 아시아-유럽 중소기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또한, ASEM 회원국 정부, 기업, 개인 간의 논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www.aseic.org

2014년도
주요사업 및
성과 보고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을 위한
새로운 출발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이하 'ASEIC')가 재단법인으로 독립하게 됨에 따라
국내외 기관에 (재)ASEIC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기 위한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이하 'ASEIC')는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된 2010 ASEM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포럼에서 중국, 덴마크 등 8개 회원국이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을 위한 설립의 필요성과 한국 설립을 공동선언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ASEIC은 2010년 벨기에에서 개최된 제8차 ASEM 정상회담에서 한국 설립 및 운영이 공식 인준됨에 따라 2011년 6월에 출범하게 되었다. 그 동안 ASEIC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관리 되어오다가, 실질적인 아시아-유럽 간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을 위한 교두보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4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독립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ASEIC의 (재)아셈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센터(이하 '(재)ASEIC')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4년 9월 17일 코엑스에서 (재)ASEIC 개소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재)ASEIC 개소식에는 주최자인 성명기 (재)ASEIC 이사장(前 이사장) 겸 이노비즈협회장을 비롯하여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ASEM 회원국 대사와 국내소재 국제기구 관계자, 그리고 국내 유관기관 및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ASEIC의 배경과 추진사업 등의 짧은 소개로 시작한 이번 개소식은 성명기 (재)ASEIC 이사장(前 이사장)의 환영사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의 격려사로 본격적인 식이 진행되었다.

환영사와 격려사를 통해 이번 개소식의 의미와 함께 (재)ASEIC이 독립하게 된 이후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 등을 소개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곧바로 이어서 앤 마리 슬로스 칼슨(Ane Marie Sloth Carlsen) UNDP(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사무소장과 양수길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상임대표의 축사가 있었다. 그는(재)ASEIC의 독립을 축하하며 앞으로 (재)ASEIC이 수행하게 될 아시아-유럽 중소기업의 친환경 혁신을 위한 역할에 대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 01. 격려사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 02. 환영사 | 성명기 (前 ASEIC 이사장)
- 03. 축사 | 앤 마리 슬로스 칼슨 (UNDP 서울정책사무소장)
- 04. 축사 | 양수길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상임대표)



01



02



03



04

이어서 이번 개소식의 하이라이트인 현판식이 거행되었다. 개소식에 참석한 주요 VIP 내빈들 모두 무대에 올라 해당 순서를 함께 해주었다.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 성명기 (재)ASEIC 이사장(前 이사장)
- 양수길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상임대표
- 앤 마리 슬로스 칼슨(Ane Marie Sloth Carlsen) UNDP(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사무소장
- 아스파하 베예네(Astaha Beyene) GCF(녹색기후기금) 상임고문
- 다리우스 나시리(Darius Nassiry) GGG(글로벌녹색성장기구) 국제협력부장
- 아이릭 아리바스(Iric C.Arribas) 주한필리핀대사관 총영사
- 빌리아 펜타르바니(Valia Pentarvani) 주한그리스대사관 공관차석

구령에 맞추어 현판의 제막천을 걷는 순간에 객석 모두가 박수를 치며 (재)ASEIC의 새 출발을 축하하였다.

개소식 행사 이후에는 공식 만찬을 통해 참석자들이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계기로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친분을 쌓은 후 행사를 성대하게 마무리했다. 성명기 이사장(前 이사장)은 "(재)ASEIC은 유럽과 아시아의 49개 ASEM 회원국 중소기업의 친환경 동반성장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친환경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ASEM 회원국 간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 및 판로 개척의 전진기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국내 주요기관에 (재)ASEIC의 존재를 알리며 국제적인 인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내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재)ASEIC은 ASEM 회원국,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친환경 혁신이라는 주어진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01. VIP 기념촬영
- 02. 축하공연(국악공연단 '시나위')
- 03. 만찬 건배



참석자 명단

구분	No	참석자
주요내빈 (8명)	1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2	성명기 ASEIC 이사장
	3	양수길 한국지속가능해법네트워크 상임대표
	4	Anne Marie Sloth Carlsen UNDP(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사무소장
	5	Asfaha Beyene GCF(녹색기후기금) 상임고문
	6	Iric C. Arribas 주한 필리핀 대사관 총영사
	7	Valia Pentarvani 주한 그리스 대사관 공관차석
	8	Darius Nassiry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국제협력부장
내부 참석자 (7명)	9	최철안 중소기업청 국장
	10	조종래 중소기업청 과장
	11	남현재 중소기업청 사무관
	12	김인성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
	13	안현애 중소기업진흥공단 과장
	14	이준희 ASEIC 부이사장
	15	김홍준 ASEIC 사무국장
외부 참석자	16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
	17	장동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8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19	한미숙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20	Somlith Khantivong 주한 라오스 대사관 공사참사관
	21	Boydo Godev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 상무관
	22	이귀호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소장
	23	김현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4	Nguyen Hoang Hai 베트남 과학기술부 기술혁신국장
	25	Levente Pallos 주한 헝가리 대사관 상무관
	26	정종혁 한국국제협력단(KOICA) 부장
	27	Denis Krasilnikov 주한 러시아 대사관 2등서기관
	28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29	이상팔 환경보전협회 사무총장	
30	강정목 ICLEI 한국사무소 담당관	
31	홍성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 기타 참석자 | 기업인, 언론인, 이노비즈 협회 및 ASEIC 직원, 수행인원 등 100여명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2014년도
주요사업 및
성과 보고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비용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비용절감에서 비즈니스 창출까지.
ASEM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의 2014년 성과를 정리했다.

개도국 대상 맞춤형 컨설팅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은 ASEM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에 전문 컨설턴트를 파견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친환경 혁신을 실행하도록 돕는 에코이노베이션 확산 사업이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 개발로 환경 문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친환경 기술을 전파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세우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이하'ASEIC')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그들의 친환경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도록 하여, ASEM 역내 지속가능한 친환경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3개국을 대상으로 총 30개의 중소기업 업체를 방문했으며 총 282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현지 워크숍을 개최해 친환경 경영 교육을 실시했으며, 인식 제고와 환경 규제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러한 현장 컨설팅 제안의 경제적 효과는 말레이시아 약 9억4,271만 원, 필리핀 8억7,295만 원, 베트남 2억3,714만 원에 달하며, 실행률은 평균 52%에 이른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말레이시아 955.57tCO2, 필리핀 26.46tCO2, 베트남 2,570tCO2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현장방문 (베트남)



에코이노베이션 인식제고 세미나 (말레이시아)



2013년도 컨설팅 사업이 5개국 42개사를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2014년도 참여기업 수는 3개국 30개사로 줄었지만, 컨설팅의 질적 효과는 오히려 상승했다. 경제적 효과는 전년도 15억9,000만 원에서 20억5,200만 원으로, 환경적 절감 효과는 1,892tCO2에서 3,552tCO2로 향상됐다.

국가	참여기업 수	경제적 효과	환경적 효과	개선방안	개선건수	실행률
말레이시아	10	2,793,395.9RM/년 한화:9억 4,271만원	955.57tCO2 감축	68	17	25%
필리핀	10	35,659,932PHP/년 한화: 8억7,295만 원	26.46tCO2 감축	34	20	59%
베트남	10	4,742,990,600Vnd/년 한화: 2억3,714만 원	2,570tCO2 감축	180	110	61%

지난 2014년 4월 국가별 컨설팅 수행사를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5월 참가업체 신청 접수와 1차 초기 진단업체 발굴, 6월 현지 정부기관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에코이노베이션 세미나 개최 등의 순서로 사업이 진행됐다. 이 중 에코이노베이션 세미나는 현지 협력 파트너인 정부·파트너 기관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또한 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SIRIM)과 ASEIC이 녹색산업 지원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하여 추후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사업에 대한 협력을 공고히 했다.

국가	기관명	1차 세미나	2차 세미나
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 (SIRIM)	14.6.25 쿠알라룸푸르 아시아태평양대학 100명 참석	14.10.16 쿠알라룸푸르 임피리나호텔 50명 참석
필리핀	필리핀 무역산업부 (DTI)	14.6.27 카비테 도청 40명 참석	14.10.21 라구나 시청 34명 참석
베트남	베트남 과학기술부 (NASA_MOST)	14.5.30 호치민 컨티넨탈사이공호텔 80명 참석	14.10.14 호치민 과학기술부 42명 참석

이어 하반기에는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개별진단을 했고, 이에 맞는 컨설팅 제공 후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최종 보고회인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와 함께 컨설팅 수료식을 진행해 총 30개 업체에 수료증을 전달했다. 2014년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은 현지 정부로부터 총 6,750만 원 상당의 공동투자를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전년도 사업과 차별화된다. 이는 총 예산의 16%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수원국의 컨설팅 사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 01. 에코이노베이션 인식제고 세미나 (베트남)
- 02.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수료식 (필리핀)



01



02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사례

에코이노베이션의 컨설팅 대표적 성공 사례로 필리핀 제조산업체인 J사의 폐기물관리 부분, 말레이시아 전자제품제조업체 Y사의 공장개선 부분, 베트남 국수제조업체 T사의 연료부분이 각각 선정되었다. 구두 제조업체인 필리핀 J사는 구두 밑창의 주재료인 고무 폐기물 처리가 주요 진단대상이었다. J사의 경우 매일 약 20kgs 고무 폐기물을 노천 소각하거나 덩핑 처리하고 있었다. 또한 이 업체가 위치한 릴리우(Liluw) 시는 유사업체가 200개 이상 분포한 곳으로, 최소 4t의 고무 폐기물이 매일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턴트는 초기 진단 후, 고무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 일차적으로 지역 내 발생된 고무 폐기물을 모아 공동처리를 하는 것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이차적으로 플라스틱압축강화기(Plastic Densifier)를 통한 재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압축강화 과정을 거쳐 폐고무를 바닥재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실제 지역사회 공동체육시설 중 하나인 농구장에 아이들이 넘어져도 안전할 수 있는, 충격완화바닥재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또한 릴리우 시의 신발제조업체들 대부분이 영세한 탓에 기계시설 구입자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필리핀 무역사업부(DTI)에서 운영 중인 SSF(Share Service Facility)와의 연계가 검토되었다. 특히 고무 폐기물 공동처리와 재활용 수익모델 부분은 중앙정부와 시정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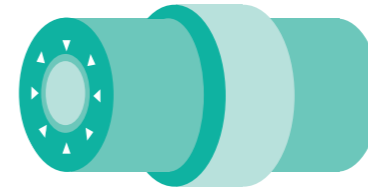


필리핀 J사 고무폐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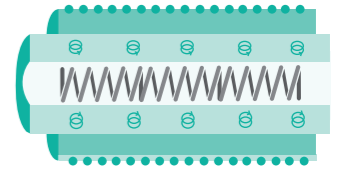


바닥재가 설치될 지역 농구장

말레이시아 Y사는 전자제품제조사로 플라스틱 사출공정에 밴딩히터 방식의 사출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사출기는 연간 가동시간이 5,000시간 이상으로 사용 비중이 꽤 높은 편이며 전체 공장 전력 사용량의 80%를 차지한다. 컨설턴트는 방문 진단에서 사출기의 히터 부분에서 열 손실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컨설팅 이후 기존의 밴딩히터 방식을 인덕션 히팅방식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전력을 최대 60%까지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다. 물론 설비 교체 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도록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Green Tech'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보유업체와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이어주는 기술수요기업·공급기업 간 MOU 진행도 지원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Y사 밴딩히터 방식



인덕션히터 방식

인덕션히팅: 대부분의 철소재는 고주파수자장(High Frequency Magnetic Field)에 노출되면 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점을 이용하여 히팅장치에 유도코일케이블(Induction Coil Cable)을 접속시킬 경우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온도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베트남 T사는 식품업 특성상 열 소비가 매우 높았다. 특히 주요 연료를 석탄으로 사용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석탄 대체 재발굴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컨설턴트는 보일러 가동 시 석탄이 아닌 친환경 바이오 연료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했다. 쌀국수와 리면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 특성상 주원료가 쌀이라는 점에 착안했고, 기존 석탄 보일러 대신 쌀겨를 사용한 보일러로의 대체가능성이 검토됐다. 그 결과 연간 연료비가 33% 절감되고 온실가스 또한 8,590t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연 4모작이 가능해 보일러의 재료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차적으로 보일러에서 나올 수 있는 쌀겨 폐기물은 벽돌 생산 시 강화제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해, 벽돌 제조업체와 이에 대한 사업을 상의 중에 있다.



베트남T사 기존 석탄 보일러



쌀겨를 사용한 보일러

친환경 적정기술 (빈곤층을 위한 에코이노베이션)

2014년도
주요사업 및
성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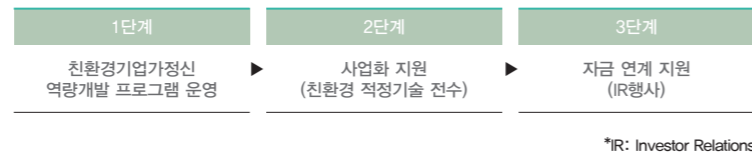
친환경 적정기술
(빈곤층을 위한
에코이노베이션)

ASEM 내 저개발국가의 에코이노베이션 활용역량과 창업역량개발로 현지 지역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친환경적정기술 사업의 2014년 성과를 정리하다.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은 일반적으로 현지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정의된다. 친환경 적정기술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적정기술을 통하여 현지인의 참여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친환경 적정기술 사업은 ASEM회원국 중 특히 저개발국가(LDC)가 경제발전과 동시에 환경을 고려하는 친환경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현지의 친환경 중소기업을 육성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은 현지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단계별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단계는 친환경 기업가정신(Eco-preneurship)으로써 친환경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 기초역량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단계에서는 친환경 적정기술 전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사업화를 지원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연계를 위한 기업의 투자설명회(IR) 행사를 지원한다.

표1) 친환경 적정기술 사업 단계별 지원 내용



2014년도 사업은 ASEM 회원국인 라오스와 캄보디아 두 개의 국가에서 실시되었다. 라오스는 신규국가로서 1단계 사업을, 캄보디아에서는 연속사업으로 3단계 사업을 실시하였다.

라오스 친환경기업가정신 역량개발 프로그램 (Green Eco-preneurship Accelerated Program in Lao PDR)

라오스에서는 현지 창업예비자(팀)와 중소기업, 일반인을 대상으로 친환경기업가정신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업활동에서의 환경 영향을 고려한 사업 모델 개발을 독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되었으며, 1주간의 단기합숙과 8주간 세부 워크샵 과정으로 국내의 한동대학교, 라오스국립대학교, 라오스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주차	날짜	주 제	장소
1	8.22~8.26	1주 집중합숙훈련	비엔티안 라오스국립대학교
2	9.6	에코이노베이션 비즈니스	
3	9.13	시장 분석 및 사업개발	
4	9.20	재무분석	
5	9.27	마케팅	비엔티안 라오스상공회의소
6	10.4	중간점검	
7	10.11	제품 개발, 회계 및 재무관리	
8	10.18	법률 및 사업계획서 작성	
9	10.25	경영전략, 경영 윤리, 사업계획 발표 및 수료식	비엔티안 래플스호텔

라오스 친환경기업가정신
역량개발 프로그램 수료식



참가자는 라오스 중소기업 대표와 직원, 창업예비팀, 현지 중소기업 관련부처 공무원, 현지 대학교수, 금융계 종사자들로 총54명이 본 프로그램을 수료하였다. 본 과정 동안 참가자는 창업 아이디어나 중소기업의 사업확장 등 사업화를 위한 기초역량을 개발하였다. 참가자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참가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만족도 결과: 매우만족 65%, 만족33%, 보통 2%)

캄보디아 친환경기업가 투자설명회



ASEIC은 2011년부터 GGG(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2012년까지 친환경 적정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을 실시하였고 2013년에는 적정기술을 사업화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친환경기업가정신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14년 사업은 후속 사업으로서, 기업 자금 지원체제가 미비한 캄보디아의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IR(투자설명회)을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14. 9. 20/프놈펜 르로얄호텔
참가자	약 130명 참여 (10개 기업, 5개 투자자 등)
내용	부스전시, 사업계획발표, 기조연설과 시상, 투자자-창업자간 투자 상담회의

ASEIC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사전에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의 사업성을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고도화하는 워크샵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참가 기업별로 전문가들의 멘토 자문을 제공하여 참가 기업들이 기업설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날짜	워크샵 내용
8.23	에코이노베이션, 제품 및 서비스
8.30	기업가정신 및 시장분석
9.6	재무제표 및 손익분기점
9.13	사업계획서 작성
9.19	발표코칭 및 리허설
9.20	친환경혁신기업가 투자설명회

10개의 참가 기업 중 6개의 참가 기업은 투자자(기관)들과 투자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는 캄보디아의 창업 아이디어에 투자 기회를 줌으로써,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창업 문화를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창업단계에서 친환경 혁신을 고려하는 친환경기업가정신이 보다 확산되어 중소기업들이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의 주역으로서 비중 있는 위치에 서기를 기대한다.

01. 참가기업 투자자 대상 제품 설명
02. 참가자 사업계획 발표



01



02

제 3장

ASEM 에코이노베이션 지수(ASEI)

2014년도
주요사업 및
성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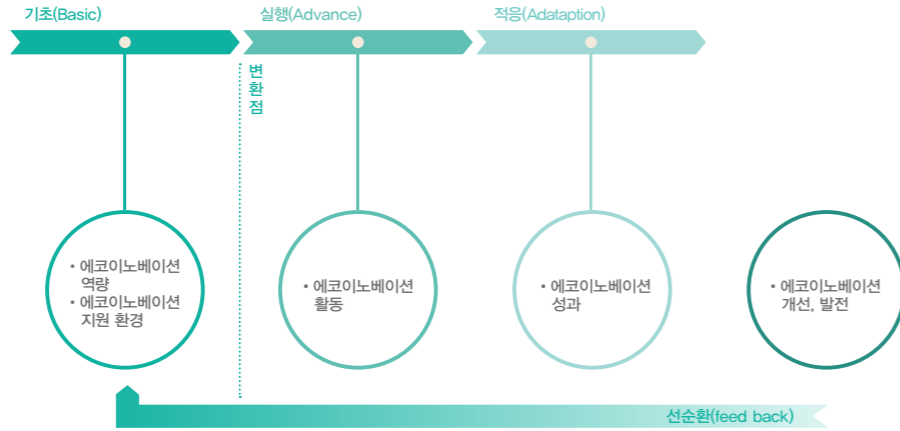
ASEM
에코이노베이션
지수(ASEI)

ASEI는 ASEM 회원국들의 친환경 혁신 현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이를 확산 및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동 지수 발표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에코이노베이션을 확산시키며 아시아와 유럽 간의 에코이노베이션 관련 양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별 에코이노베이션 관련 정책 및 규제 등을 개선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친환경 혁신정책을 위한 연구

ASEIC은 2012년부터 아시아-유럽 15개국 분석을 시작으로 2013년 25개국의 에코이노베이션 정책과 제도현황, 기업의 혁신사례 등을 조사하고 평가해왔다. 2014년 ASEI는 그간 개발된 평가 지표 구성의 이론적 기반을 확립하고, 평가국을 확대하여 ASEM 회원국전체 49개국을 대상으로 지수를 평가했다. 또한 금번 연구에서는 정성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유럽 각국의 정책이나 사례 등 정성적 자료를 지수분석에 통합하고 다면적 분석틀을 제공하여 사회, 환경, 경제 그룹별로 분석을 다양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및 국가차원의 혁신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여 수록했다.

우선 금년 연구에서는 ASEI 스토리라인과 평가 프레임워크가 구축되었다. ASEI프레임워크에서 네 가지 평가 영역인 에코이노베이션 역량, 지원환경, 활동과 성과 중 '역량'과 '지원환경'을 포함한 에코이노베이션 관련 인프라를 1단계인 '기초(Basic)' 단계로 설정했다. 기초단계가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는 2단계는 '실천(Advance)' 단계이며, 마지막 에코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3단계는 에코이노베이션 '성과'를 나타내는 '적응(Adaptation)'단계로서 2단계에서 경험한 다양한 활동중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단계이다.



이와 같이 ASEI 스토리라인과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에코이노베이션 현황 평가영역인 각국의 에코이노베이션 역량, 지원환경, 활동,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20개의 세부지표를 선정하여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12개 지표를 최종적으로 활용하여 국가별 지수를 도출할 수 있었다.

ASEI 세부지표

*20개 지표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12개 지표(볼드)가 활용됨

평가영역	세부지표
에코이노베이션 역량	1.1 국가경쟁력 향상 잠재력
	1.2 국가 일반 혁신 역량
	1.3 연구기관의 녹색기술 R&D 역량
	1.4 녹색혁신기술 보유 기업 수
에코이노베이션지원환경	1.5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인식 수준
	2.1 정부 녹색 R&D 지출 규모
	2.2 환경규제의 이행
	2.3 녹색기술산업 투자 환경 수준
	2.4 녹색혁신기술 중소기업 투자 규모
	3.1 녹색기술 상용화 기업 수
에코이노베이션활동	3.2 환경경영 참여 수준
	3.3 주요 친환경 기업에 경제적 영향력
	3.4 녹색특허
에코이노베이션성과	3.5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
	4.1 환경영향으로 인한 삶의 질
	4.2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4.3 에너지 지속가능성 수준
	4.4 수자원 소비 집약도
	4.5 녹색기술산업 고용률
	4.6 녹색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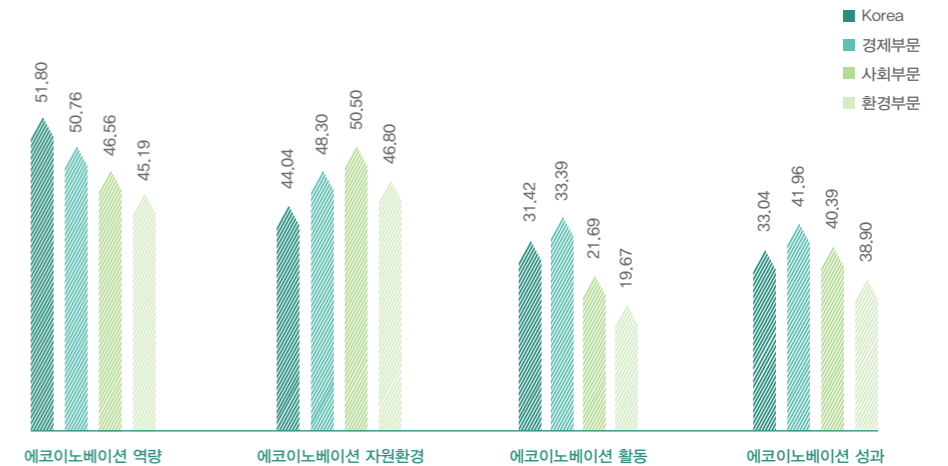
특히, 지수 정량 평가는 지속가능성 측정의 척도로 활용되는 Triple Bottom Line(경제, 사회, 환경 3중 목적 평가)으로 국가들을 부문별로 그룹화를 하고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비교 분석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 특성에 따라 49개국을 4분위 그룹핑을 하였으며, 경제는 1인당 GDP, 사회부문은 지속가능 경쟁력 지수(출처: WEF), 환경부문은 지속가능 경쟁력 지수(출처: WEF)를 기준으로 각 국을 분류한 후 각 분위별 비교 분석을 실행했다.

대한민국의 ASEI 정량분석

2014년 평가 영역을 세부지표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에코이노베이션 역량은 최소값 2.10(Myanmar)에서 최대값 72.30(France)의 범위를 갖고, 에코이노베이션 지원 환경은 최소값 14.85(Greece)에서 최대값 77.96(Estonia)의 범위로 나타났다. 에코이노베이션 활동은 최소값 0.00(Myanmar)에서 최대값 70.34(Japan)의 범위를 보이며 에코이노베이션 성과는 최소값 3.84(Myanmar)에서 최대값 54.13(China)의 범위를 보였다.

	평가영역	국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에코이노베이션	에코이노베이션 역량	49,00	39.63	18.03	2.10	72.30
	에코이노베이션 지원환경	49,00	43.47	13.43	14.85	77.96
	에코이노베이션 활동	49,00	20.34	17.80	0.00	70.34
	에코이노베이션 성과	49,00	36.25	11.67	3.84	54.13

대표적으로 국가별 지수를 보면, 에코이노베이션 활동에서 일본의 경우 70.34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환경경영 참여수준이 평균적인 수준이면서도 주요 친환경 기업의 경제적 영향력과 녹색특허에서의 높은 수치가 반영된 결과이다. 스페인의 경우, 다른 지수가 평범한 수준에 그치는 것에 반해 에코이노베이션 역량에서 71.73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스페인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인식수준이 모든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다른 영역에서는 모두 높은 순위를 유지한 반면에 활동에서 34.25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것은 스위스의 경우 주요 친환경 기업의 경제적 영향력과 녹색 특허에서 상위 국가들보다 그 수준이 비교적 낮았음이 반영된 결과이다. 프랑스는 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데, 이는 국가경쟁력 향상 잠재력과 국가 일반 혁신 역량이 평균보다 다소 높고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인식수준이 최상위로 나타난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 사회, 환경부문 2분위 국가에 속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다른 2분위에 속한 국가들의 평균 점수보다 에코이노베이션 역량과 활동 점수에서 높은 수치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에코이노베이션 지원 환경과 성과 점수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에코이노베이션 추진 원동력을 갖춘 우수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가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 환경에도 에코이노베이션을 위한 민간부문 위주의 활동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부가 친환경 R&D 등의 지원을 늘리고 녹색시장 확대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에코이노베이션 달성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에코이노베이션 지수(ASEI) 연구의 성과



2015 ASEM 에코이노베이션 지수(ASEI) 보고서

ASEI분석을 통해 4대 평가 영역에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에코이노베이션 역량, 활동, 성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에코이노베이션 지원환경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에코이노베이션 평가 영역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개별 지수 간 상관 정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연구에서는 ASEI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 에코이노베이션 연구소(EIO), 유엔대학교(UNU-MERIT), 독일 정책연구기관(German Watch) 등 글로벌 자문단을 구성하여 중간연구결과 및 최종결과물을 점검 받았고 국제회의 및 관련 학계에서 발표를 통해 전문가들과 국가 담당자들 사이에 질의와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2014년 9월 아시아-유럽 환경포럼(ENV포럼)에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국제 환경전문가들과 아시아 유럽국 정책결정자들의 코멘트를 수렴했으며, ASEI 최초로 학술대회에 2014년 지수 연구 방법론 및 중간결과를 2014 한국환경 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SCI 온라인 포럼(환경과 자원의 지속가능성 세션)에 발표하여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방법의 중간 점검의 과정을 거치며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수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금년 연구는 ASEI가 ASEM 전체 회원국의 에코이노베이션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론적 배경과 스토리라인의 강화로 지수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였으며 전체 회원국에 대한 측정을 통해 에코이노베이션의 발전 가능성과 향후 지수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활동들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삼중 목적 분석을 통해 환경이 유사한 국가별로 지수분석을 시도하여 에코이노베이션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정성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보다 현실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5년 ASEI는 금년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의 현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것을 바탕으로 지수를 객관화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우선적으로 회원국 간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분석된 지수와 결과를 자료로 하여 ASEM 회원국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별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 3장

글로벌 포럼 개최

2014년도
주요사업 및
성과 보고

글로벌 포럼
개최

ENV포럼

한·중 친환경
산업협력 포럼
및 무역상담회

ASEIC은 글로벌 포럼을 통해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중소기업의 친환경혁신 정책과 그 확산을 위해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기업들이 모여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Asia-Europe Environment 포럼



ASEIC은 아시아-유럽 환경포럼(이하 'ENV포럼')을 공동주최하여 2014년 9월 29일~30일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 EU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아시아-유럽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2015이후 개발집행 수단 아젠다"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본 컨퍼런스에는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이 모였으며 OECD, 유럽연합 위원회(EU), UN 산업개발기구, UN 환경기구 등 국제기구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2014년 ENV포럼은 ASEIC과 아시아 유럽 재단(ASEF), 스웨덴 국제 개발공단(SIDA), 한스-자이델 재단(HSF), 국제 환경전략 연구소(IGES)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또한, 국제 지속가능 연구소(ISD)는 유럽중앙대학교(ECU)와 함께 "Small Planet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와 지표: 지속가능성 평가측정"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금년 컨퍼런스에서 해당 연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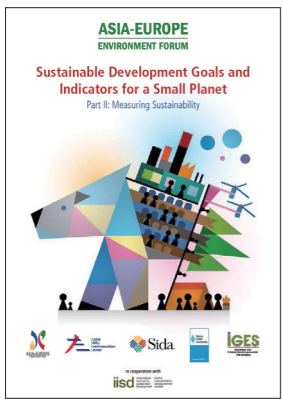
ASEIC은 2012년 RIO+20 당시 UN 사이드 컨퍼런스의 공동개최를 한 것에 이어, ENV포럼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어 포럼의 공동주최를 진행해왔다. 그간 포럼의 아시아-유럽의 지속가능한 개발추진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연구, 보고서 발간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9월에 열린 컨퍼런스에서 ASEIC은 포럼 주최측으로 개최인사를 하여 RIO+20 UN 정상회담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제사회의 공통 비전임을 제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수단을 논의하는 컨퍼런스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 ASEIC은 이 자리에서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친환경 혁신을 위해 ASEM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프로세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언급했다.

**ASIA-EUROPE
ENVIRONMENT FORUM**



또한 ASEIC은 2013년 ENV포럼에서 ASEM 에코이노베이션 지수(이하 'ASEI')를 발표한 데에 이어 2014년 컨퍼런스에서는 ASEI 개발의 배경과 개요, 연구체계와 그간 연구성과 및 향후 계획과 당부를 발표했다. 특히 2014년 ASEI의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에코이노베이션의 정의와 중요성, 2014년 정량적·정성적분석을 포함한 지수의 고도화된 연구방법론, 지수연구의 데이터활용과 한계, 지수 구성체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발표하고 컨퍼런스에 참석한 국제 환경전문가들과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와 유럽 각국의 에코이노베이션을 평가한 지수연구 방법론과 아시아-유럽 비교분석, 데이터 수집방법, 향후 결과와 함의와 관련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질의와 관심을 받았다.



Small planet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지표 : 지속가능성평가의 측정 보고서

이외에 금번 ENV포럼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 최종보고서를 발간했다. 최종보고서에는 14개의 아시아-유럽국가를 대상으로 11개의 지속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측정지표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표로 나누어 각 국가의 목표 설정과 지표분석을 위한 데이터수집과 모니터링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ENV포럼 컨퍼런스에서는 2015년 이후 개발 아젠다와 이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의했다. 이날의 주된 주제는 RIO 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집행수단과 거버넌스 구조, 혁신적인 자원마련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였다. UN이나 World Bank, Green Climate Fund(GCF)와 같은 국제기구들과 각 정부의 기금들이 개발도상국에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절차와 구조가 복잡함을 인정하고, 국제적 차원의 뚜렷한 가이드라인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기구나 각 정부의 기금 외에도 민간 자금의 활용도 활성화 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이외에도 둘째 날 진행된 기업의 친환경 혁신사례 발표에서는 Komatsu의 에너지 효율개선, Citra의 생산가치 사슬변화 등이 소개되었으며 유럽연합이나 폴란드, 필리핀의 다양한 제도와 정책, 국제협력 노력 등의 케이스 발표가 이어졌다.

ASEIC은 조정위원회에 주최 위원으로 참석하여 향후 컨퍼런스 주제는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 각 나라 중소기업들의 친환경 혁신 성공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이어 포럼에 실무자 참여를 통한 공동 프로젝트의 기회 모색을 강화하자고 발언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이나 GCF 등 국제기구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에 예산을 집행하여 친환경 사업을 활성화하고 자금 조성 및 집행의 갭을 완화하는 장으로 포럼이 진행된다면 앞으로의 운영이 효과적일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회의에서 논의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혁신 역량 강화프로그램 개발에 동의하고, 아시아-유럽의 친환경 혁신 성공사례 공유와 역량 강화교육에 ASEIC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발언했다.

ASEIC은 2015년에도 아시아 유럽재단과의 협력을 유지하고 ENV포럼 컨퍼런스를 공동주최하여 지수연구에 지속적인 국제전문가 자문을 유지하며, 포럼을 통해 아시아-유럽 간의 가교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유럽과 한국의 에코이노베이션 사례를 아시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현지에 이를 전파할 계획이다.



중국 친환경 시장 공략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를 구성하는 초강대국으로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선진국으로서의 지위에 걸맞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재)아셈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센터(이하 '(재)ASEIC')는 중국과 협력하여 한-중 양국간의 환경정책 및 환경이슈와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세계의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중소기업간 환경관련 기술 및 상품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한-중 친환경 산업협력 포럼 및 무역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재)ASEIC은 한국 중소기업청의 후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의 협조 하에 2011년 중국 제남, 2012년 중국 칭다오, 2013년 중국 다롄에 이어서 2014년 10월 22일~24일에 걸쳐 중국 시안에서 한-중 친환경 산업협력 포럼 및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였다.

구분	일시	장소	포럼주제	포럼 참석자	상담회 참여기업
1차	2011. 11.30	중국 제남	한-중 녹색기술 협력 및 녹색산업 공동발전 방안 모색	유관기관 및 기업인 160여명	한국 27개사 중국바이어 100개사
2차	2012. 11.29	중국 칭다오	녹색산업 공동 발전방안 모색	유관기관 및 기업인 190여명	한국 15개사 중국바이어 30개사
3차	2013. 11.20	중국 다롄	녹색산업 협력 방안 및 중국 풍력발전 산업 협력모델 발표	친환경 기업 및 양국 관계자 160여명	한국 15개사 중국바이어 60개사
4차	2014. 10.22	중국 시안	중국 환경개선 방안 및 ASEM 회원국 친환경 에너지정책 등 환경대응 전략	유관기관 및 기업인 200여명	한국 35개사 중국바이어 90개사

이번 행사는 심서성 정부와 중소기업청이 2013년 11월에 맺은 양국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의 일환으로 (재)ASEIC이 주최가 되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양국 정부 및 민간의 환경 분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협력 포럼과 국제 환경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및 투자와 관련해 양국 환경산업분야의 협력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무역상담회로 이루어졌다.



1일차인 22일에는 '중국 환경개선 방안 및 ASEM 회원국 친환경 에너지정책 등 환경대응 전략'에 대한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및 세계의 환경이슈에 대한 이해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장편원 중국 심서성 환경과학 연구원장 <중국 심서성 환경산업현황 및 협력방안>
- Thierry Schwarz ASEM(아시아-유럽 재단)정치경제부국장 <국제환경산업 동향 및 국제공조방안>
- 조진석 에코테크엔지니어링 이사 <한국 환경폐기물 처리기술 기업사례>
- 양명식 대한민국 환경부 사무관 <한국 환경산업 현황 및 지원정책 소개>
- 당파룡 고신구개발위원회 환보과기산업원 주임 <환보과기산업원 소개>

한편, 포럼에 앞서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과 왕리사 심서성 부성장은 면담을 통해 양국의 환경산업 협력 방안과 한국 중소기업의 서부내륙진출 확대에 따른 협력과 지원을 논의했다.

2일차인 23일에는 국내 친환경 업체와 중국 친환경 프로젝트 발주처 및 바이어의 1:1 프로젝트 무역상담회가 있었다.

이번 상담회는 국내 친환경 업체 35개사(기술·설비 24개사, 완제품 11개사)와 중국 친환경 프로젝트 발주처 및 바이어 90여 개 사가 참가해 양국 환경산업분야의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창구로 활용되었다. 특히, 국내 참가 업체 중에는 수처리 업체의 참여가 두드러져서 전체 국내참가업체 35개사 중 18개사가 수처리 관련업체로 대 중국 수처리 시장진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술·설비업체 24개사 중 10개사가 수처리 업체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완제품 업체 11개사 중에서도 정수기나 수처리 필터 등을 취급하는 수처리 관련 업체가 8개사로 가장 많았다.

중국 내 수처리 관련 내수시장은 전망이 상당히 밝은 편이다. 최근 중국에서 진행되는 친환경 프로젝트의 60% 정도가 수처리 관련 프로젝트이고, 이번 행사에서도 수처리 관련 프로젝트를 보유한 발주처의 참가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국내 수처리 업체의 중국 진출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폐기물 처리, 대기오염 등 국내 업체와 관련한 프로젝트 발주처 및 바이어의 참가 역시 활발해 중국의 친환경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뻗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중국 상해, 다롄, 정저우, 창사 등 각 지역의 발주처 및 바이어 22개사도 대거 참여하는 등 이를 통해 서부내륙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 지역으로의 시장 진출 기회를 엿볼 수 있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1천만 달러 수출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중국 친환경시장에 대한 과감한 공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행사가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 차장 심서성 부성장 면담



제 3장

그린비즈니스 센터 (Green Business Center) 운영

2014년도
주요사업 및
성과 보고

그린비즈니스
센터(GBC) 운영

인도네시아 내의 그린비즈니스 센터 설립 이후 ASEIC은 2014년 해당 센터를 재단법인 ASEIC의 산하기관으로 편입시켰으며, 이로써 그린비즈니스센터는 본격적으로 ASEM 회원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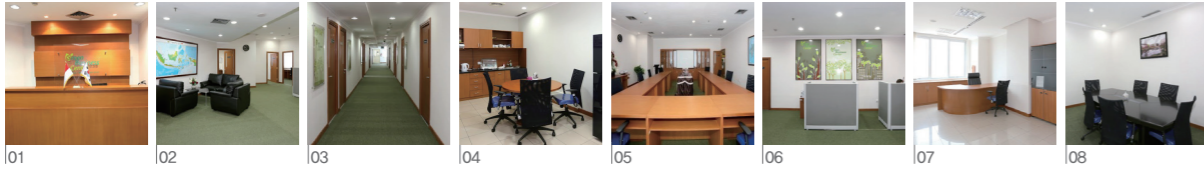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그린비즈니스 센터의 역사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가운데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세계 16위 정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ASEAN 국가 가운데에서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2위의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외국인이 사업확장을 희망하는 ASEAN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나라이다. 인도네시아의 내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중요성 역시 커서, 인도네시아 국내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9%에 달하며 동시에 인도네시아 GDP의 60%를 이룰 중소기업이 도맡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험부족 등 중소기업 역량 강화의 미흡함과 각종 관련 규정 및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한 세계적인 이슈인 환경보호와 관련, 정부의 인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친환경 혁신 및 성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흡한 대처를 하고 있다. 이에 2011년 6월에 출범한 아셈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센터(이하 'ASEIC')는 2010년 체결된 한-인니 양국 간 녹색산업 지원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로서 인도네시아에 그린비즈니스 센터(이하 'GBC')를 설치하였다. 인도네시아 GBC는 ASEM 회원국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친환경 산업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주공간 및 각종 컨설팅을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ASEIC의 아시아 지역 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01. 입구 데스크
- 02. 공용공간(휴게실, 사무기기)
- 03. 복도
- 04. 식당·탕비실
- 05. 대회의실
- 06. 행정실
- 07. 입주업체사무실
- 08. 미팅룸

- 사무공간 제공 : 현지법인 설립 및 사업활동을 위한 전용 사무공간 제공
- 전문컨설팅 지원 : (재)ASEC 국제컨설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장정보 분석 및 마케팅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법률, 회계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전문 자문 제공
- 기술 매칭 : 현지 기업과 입주업체 간 수요-공급 기술을 파악하여 기술 매칭
- 기타 서비스 및 행정 지원 : 입주업체 간 또는 입주업체와 현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지원 및 현지 법인 설립 등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매칭펀드 형태(한국1.5억 원 / 인도네시아 0.5억 원)로 운영되는 GBC는 설치 이후 총 11개 한국기업과 4개 인도네시아 기업의 성공적 초기 정착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GBC는 홍보 부족, 법적 지위 미확보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에 부딪혀 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4년, 인도네시아의 GBC는 향후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ASEM 회원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GBC가 (재)ASEC의 지역 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에 있어 그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

2014년 인도네시아 그린비즈니스 센터의 변화

첫째, ASEC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독립하여 (재)ASEC이 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위탁관리하던 GBC는 (재)ASEC의 산하 기관으로 편입되었다. 소속이 명확해지면서 GBC는 (재)ASEC의 비전과 설립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속 변경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파견된 인원이 겸임하고 있던 GBC 센터장 직위에 (재)ASEC 소속의 센터장 전담 인원을 채용하여 사업 수행의 효율성 및 능동성을 제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GBC는 향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둘째, GBC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GBC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법적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현지 직원 채용, 예산 사용, 입주부담금 납부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현지 규정상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에도 힘든 점이 많았다. 하지만 (재)ASEC의 대표 사무소라는 법적 지위를 획득한 이후 GBC는 공식 사업등록을 하고 합법적인 직원채용 및 예산 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재)ASEC의 아시아 지역 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또한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GBC는 2015년 입주업체를 대대적으로 모집했다. 지금까지 홍보 부족으로 많은 공실이 발생하여 인도네시아 내외국 업체들의 입주율이 낮았으나 대대적인 홍보 및 모집을 통해 현재는 총 9개의 한국 입주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ASEM 회원국 중소기업들과도 입주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는 본래 GBC의 설립 취지를 살리면서 활성화된 GBC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GBC는 2014년에 마련한 운영의 기틀을 가지고 2015년을 정상적 운영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ASEM 회원국 중소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 GBC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다른 ASEM 회원국 국가에도 GBC를 설치하여 GBC가 명실상부한 (재)ASEC의 해외 대표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 3장

ASEIC 사이트 운영

2014년도
주요사업 및
성과 보고

ASEIC
사이트 운영

현재 ASEIC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를 토대로 보다 많은 이들에게 ASEIC을 알리고 있으며, 동시에 ASEM 회원국들이 해당 매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SEIC 사이트 운영



ASEIC 모바일 사이트
m.aseic.org

현대 사회는 정보의 공유 및 소통, 그리고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이다. ASEIC 역시 세계화 추세에 발 맞추어 ASEM 회원국들이 친환경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활발하게 소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련 기관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여 에코이노베이션이 국제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온라인 창구로써 ASEIC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ASEIC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서도 해당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다.

ASEIC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는 구체적 홍보 수단으로는 분기별로 제작하는 ASEIC E-뉴스레터가 있다. 지난해 ASEIC 사업성과 및 다양한 이노베이션 관련뉴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뉴스레터는 ASEIC과 관련된 약 150개 유관기관에 발송되어졌다. 해당 사이트에도 관련 소식을 게재함으로써 ASEM 회원국 및 전 국가를 대상으로 에코이노베이션 및 ASEIC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매주 2회씩 국제 환경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전 세계의 친환경 관련 소식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해당 사이트에 각 사업별 결과보고서를 게재함으로써 ASEIC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성과들로 ASEIC 사이트는 전년 대비 약62%의 방문자 수가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사이트 운영을 통해 에코이노베이션이 확산되도록 이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3 ASEIC Newslette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이노밸리 E동 2F 463-400
E info@aseic.org T 031 628 9608 F 031 628 9674
www.aseic.org

